



환호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당 소속 후보들의 승리 소식에 만세를 부르고 있다.



침통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재보선 상황실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정몽준 대표가 자리를 뜬 가운데 심각한 표정으로 재보선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각’이나 ‘무효’냐

현재, 오늘 미디어법 결정... 정치권 촉각 여야 각각 승리 주장속 결과따라 큰 파장

미디어법 효력적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둔 28일 여야 정치권은 긴장감 속에 현재의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재 결정은 10·28 재·보선 결과와 함께 향후 정국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모든 정보력을 총 동원, 현재의 동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현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와도 여야간 정국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후속조치 마련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현재가 인용 판단을 내린다고 여야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인용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에서 온 만큼 새로운 절차를 밟아 미디어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여당으로서는 현재의 인용 판정으로 미디어법 무효판정을 내려 지면 세종시 축소 논란과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정국운영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선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쏟는 동안 민주당은 ‘3대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생떼쓰기, 흡집내기, 발목잡기로 일관했다”며 “특히 야당은 어느 선진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폭력과 파업, 절차를 무시한 표결방해 행위를 일삼았다”며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야당 태도를 재차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내세우며 무효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민 대부분이 ‘미디어법 원천무효’ 의견이 있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증거도 여러 가지를 냈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재창 원내대변인도 “보수적인 헌법학자들조차 미디어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 결정이 나올 것으로 확실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힘 받은 민주, MB정부 견제 탄력

10·28재보선 결과와 향후 정국

수원 승리로 손학규 당내 영향력 커질 듯 한 정몽준 리더십 부재 조기 전대 논란 예고

10·28 재보선은 결국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며 재보선 야당 연승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28일 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선 개표 결과, 민주당은 당초 우세했던 안산상륙과 충북 뿐 아니라 접전을 펼쳤던 수원에서도 승리, 여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세력으로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원 장안을 지켜 최하 3대2까지는 갈 것이라 예상을 깨고 패배했다.
◇민주당 정국 주도권 장악 가능성 커=이번 재보선으로 민주당은 향후 정국에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비록 압승은 아니지만 기존 한나라당 의원이 지키던 지역구에서 3석을 건전으로써 여야 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번 승리로 민주당은 민심의 힘을 얻었다는 명분을 얻게 돼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여권은 향후

정국을 이끌 수 있는 추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연말 예산 정국을 앞두고 민심 경쟁에서 야당이 밀린 탓에 대부분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 떠오르고 정세균은 안심=이번 재보선 결과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수원 장안의 승리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 정세균 현 대표도 전체적인 승리를 거둬으로써 당내 비주류의 반발을 뒤로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민주당의 이번 수원 장안 승리는 손 전 대표의 공이 크다는 것이 민주당 내의 일반적 평가다. 정 대표는 이번 재보선 선거운동에서 안산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수원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수원에서 패배하더라도 안산과 충북에서만 승리하면 당권 유지에는 큰 탈이 없을 것이라는 정 대표 측의 정치적 계산때문이었지만 수원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손 전 대표가 갖는 존재감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 전 대표의 정계 조기 복귀를 원하는 민중 내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경남 양산에서 아쉬운 패배를 했지만 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계의 전폭적 지원 속에 박빙의 접전을 펼쳐 향후 친노세력과의 통합이 야권 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서 조기 전당대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대표직을 승계한 정 대표가 재보선에서 패배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한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홍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수원 장안

박찬숙	한나라	33,106(42.7%)
* 이찬열	민주	38,187(49.2%)
안동섭	민노	5,570(7.2%)
윤준영	무	716(0.9%)

경기 안산 상륙

김영환	민주	14,176(41.2%)
최경우	자유선진	1,145(3.3%)
김석근	무	896(2.6%)
윤문원	무	439(1.3%)
이영호	무	987(2.9%)
임종민	무	5,363(15.6%)

강원 강릉

* 권성동	한나라	34,834(50.9%)
홍재경	창조한국	2,612(3.8%)
송영철	무	23,097(33.8%)
심기섭	무	7,883(11.5%)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경대수	한나라	22,077(29.6%)
* 정범구	민주	31,232(41.9%)
정원환	자유선진	3,249(4.4%)
박기수	민노	2,379(3.2%)
이태희	자유평화	552(0.7%)
김경희	무	14,977(20.1%)

경남 양산

* 박희태	한나라	30,801(38.1%)
송인배	민주	27,502(34.1%)
박승훈	민노	2,836(3.5%)
김상걸	무	2,436(3.0%)
김양수	무	11,162(13.8%)
김용구	무	443(0.5%)
김진명	무	546(0.7%)
유재명	무	5,033(6.3%)

이낙연 국감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한농연, 베스트의원엔 김영록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이낙연 위원장(영광·함평·장성),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2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로부터 2009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과 베스트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한농연으로부터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원활하게 국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우수상임위원장상인 특별상을 받았다.
같은 당 소속인 김 의원은 한나라당 신성범·조진래 의원과 함께



한민단체 의견 반영도 및 질의 충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베스트의원이 됐다.
한편, 한농연은 국감현장 모니터 요원들이 성실도, 정책제언의 참신성, 농업계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 충실성 등을 토대로 베스트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7·9급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단과합격특강

SHADOW고급영어, 원무원기초기초영어

국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한빛고시의 합격시스템

개강 11.2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